

경증 치매 노인의 소통 향상과 사회성 회복을 위한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모델 연구

A Study of Art Museums Convergence Education Guidelines Model for
Communication Improvement and Social Recovery of Mild Dementia
Senior People

주 저 자 : 양연경 (Yang, Yeon Kyoung)

한성대학교 아트앤디자인커뮤니케이션연구소
NRF 학술연구교수(학술연구원)
ykyang@hansung.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2.1.99>

접수일자 2022. 2. 25 / 심사완료일자 2022. 3. 16. / 게재확정일자 2022. 3. 25.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2754)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B5A16082754)

Abstract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model of the convergence education guideline necessary in the art museum to restore the sociality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The detailed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anges and issues in the participation of elderly art galleries based on COVID-19 were analyzed, and the necessity of a cooperative culture and arts healing program for art galleries and dementia relief centers was proposed. Second, For the efficiency of operating art healing programs at art galleries focusing on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ity, the case of art healing programs at art museums and culture and arts healing education programs at regional dementia relief center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ird, the results of culture and arts convergence education for the elderly with cognitive impairment and mild dementia were evaluated and analyzed, and a model for convergence education for the elderly with cognitive impairment and mild dementia was proposed. In conclusion, guidelines for convergent education for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that can be used by museum curators and educators were proposed.

Keyword

Museum Guidelines(미술관 가이드라인), Mild Dementia(경증치매), Social Recovery(사회적 회복)

요약

본 연구는 경증 치매 노인의 사회성 회복을 위해 미술관에서 필요한 융합 교육 가이드라인의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층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을 고찰 분석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기준의 노년층 미술관 활동 참여 변화와 이슈를 분석하였으며, 미술관 및 치매안심센터 협력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소통 능력 및 사회성 향상 중심 미술관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미술관 방문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및 지역 치매안심센터 방문형 문화예술치유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미술관 컨소시엄형 노년층 문화예술 융합교육 결과를 평가 분석하였으며, 인지장애 및 경증 치매 노년층 대상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미술관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경증치매 노년층 대상의 효과적인 융합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포스트코로나 이슈에 따른 노년층의 문화 생활과 삶의 질 고찰

- 2-1. 노년층 미술관 활동 참여 변화와 이슈
- 2-2. 협력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필요성

3. 소통과 사회성 증진 미술관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사례 분석

- 3-1. 미술관 방문형 문화예술치유 사례
- 3-2. 지역 치매안심센터 연계형 교육 사례

4. 경증치매 노년층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 라인 모델 수립

- 4-1. 미술관 중심 컨소시엄형 결과 평가 분석
- 4-2.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모델 제안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술관의 기본 역할이 전시, 교육, 수집, 보존, 연구 등을 중점으로 작가(작품)-기획자-관람객의 상호 관계를 통해 예술적 향수를 고취시키고,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에 주력하였다면, 미술관의 사회적 핵심 역할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장애인, 초고령층 독거 노인, 난치병 환자 및 후유장애 회복 치료자, 기초생활수급 가족 등과 같은 문화예술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 연계 교육 및 체험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술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와 중증질환 전담 의료시설 종사자, 노인성 질환 및 인지장애가 있는 노년층, 돌봄가족 보호자 등을 문화접근성 취약계층으로 함께 포함하면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대, 건전하고 창의적인 개인 여가 활동 확산, 심리적 치유와 회복 등에 복합적인 목표를 두는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들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술 향유, 여가 확산, 치유와 회복 등을 지향하는 미술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전시 큐레이터와 예술교육 에듀케이터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인력들과 함께 협업하여 미술관 프로그램을 융복합 사업 중심으로 기획 및 구축하고, 현장에서 회기별 프로그램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8년부터 심리적 상처를 경험한 대상자를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부처간 협력형 사업,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치유 사업, 코로나블루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예술체험으로 극복하고 사회적 역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¹⁾

이처럼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대중적 참여 활동은 예술에 기반하는 미적 체험과 창의적 접근에 따른 호기심과 즐거움을 체득할 수 있으며, 감상·체험·몰입·교감

등의 과정을 통해 심리적 부담감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치료(治療)와 치유(治癒)의 효과를 함께 제공받는 확장된 가능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2020년~2021년을 코로나 팬데믹 현상의 기간으로 정의한다면, 2022년은 백신 접종자의 확대와 코로나 증상 자가진단 키트 보급 확산, 유증상 자가치료 의로서비스 제공의 보편화 등을 토대로 ‘엔데믹(Endemic)²⁾’의 시대에 진입하는 과도기에 놓여있다.³⁾ 2016~2020년까지 치매 의심 노년층 현황을 보면 60대 6.9%, 70대 33.5%, 80대 이상 59.6% 등의 비율로 초고령 노년층으로 올라감에 따라 치매 의심 비율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비중을 보인다. 치매의 중증도 비율은 최경도 및 경도 치매 증상 노인은 58.8%이며, 최근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증상을 일찍 발견하는 추세이다.⁴⁾

앞서 제시된 코로나 이슈의 전후에 따른 문화예술 치유사업의 치매예방형 주제 프로그램에 주요 핵심을 두고,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경증 치매 노년층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효과성, 노인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 회복 등이 가능한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모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년층의 미술관 방문 접근성을 높인 전시 감상 서비스 및 시니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미술관 컨소시엄형 교육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모색한다.

둘째, 감상과 학습 중심의 미술관 활동의 영역을 심리치유와 자기회복력 증진의 예술치료 영역으로 확대하여 문화향유·임상과 상담·교류와 교감 등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통의 향상과 공감의 증대를 이끌어내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셋째, 미술관 전시 및 교육팀, 예술치료 전문가팀,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사업 공모 결과 공지사항(2022.02.18. 기준: ‘치매’ 키워드 기준),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result/Business_BoardList.do

2) 한정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뜻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및 TV 용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28926&cid=43667&categoryId=43667>)

3) 공영방송 뉴스, (2022.01.2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80072&ref=A>,

4) 이영희, [노인복지론], 에듀컨텐츠휴피아, 2020, p.219

지역 치매안심센터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효과적인 문화예술치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사회적 회복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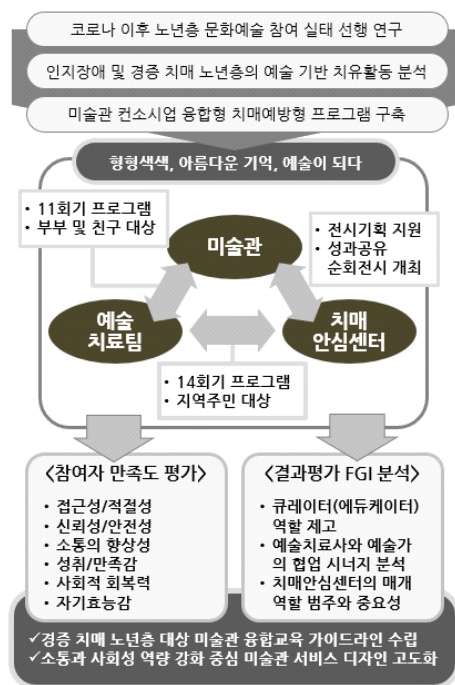
넷째, 소통·치유·공감·나눔·지지 등의 긍정적 영향력을 수반하는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인지장애와 경증 치매 노년층의 미술관 방문과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포용할 수 있는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융합교육 모델을 제안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등록사립미술관, 수도권 소재 대학 미술치료학과 소속 예술치료팀, 서울 소재 치매안심센터 등, 3개 기관들이 협력을 맺고 미술관을 주축으로 진행된 치매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과 단계별 슈퍼비전,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 평가 활동 등을 반영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미술관을 주축으로 기획행정운영, 심리치유 목적의 예술치료 활동, 인지장애와 경증 치매 위험군 대상 내담자 모집을 통한 상담과 모니터링 및 참여현장 인솔 관리 등이 상호 연계되는 종합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미술관 융합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통제로 인한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방문과 시설 이용 제한, 독거 노년층의 소통 기회 축소에 따른 사회적 저하와 인지기능 약화의 문제, 심리치유와 자기회복력의 탄성 강화 등을 중점으로 하여 미술관에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소비의 기회를 확대하고, 임상과 치료의 개념을 병행하는 예술적 치유 활동을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검증하면서 건강보조와 복지를 담당하는 지역내 치매안심센터와 협력 및 공유 시스템을 갖추는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모델을 구현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연구의 주요 범위와 방법은 의과대학 예술치료팀이 공통주제 내 2개의 예술치유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하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미술관 콘텐츠를 아웃리치 방식으로 적용하여 예술치료팀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14회기, 미술관의 다양한 공간 활용과 전시 감상을 병행하는 치매안심센터 내담자 초대형 프로그램 11회기 등의 주요 운영 과정과 평가 결과들을 주요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치유프로그램의 종료 후, 노년층 참여자(내담자) 중심 만족도 평가를 분석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진행·관리하였던 전문학예인력, 예술치료사, 예술가, 의료종사자 22인의 FGI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결과들은 인지장애와 경증 치매 노년층이 효과적으로 미술관 활동에 참여하고, 풍부한 경험과 긍정적 자극효과를 통한 소통의 향상과 사회적 회복이 탄력적으로 효능감을 발휘하는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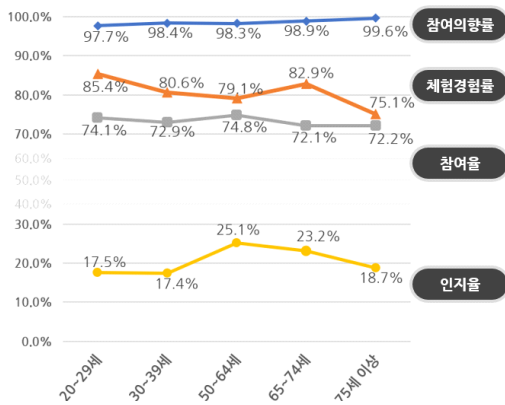
2. 포스트코로나 이슈에 따른 노년층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 고찰

2-1. 노년층 미술관 활동 참여 변화와 이슈

생애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짐에 따라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신중년 세대는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를 잇는 중간 세대로 구분되며, 신중년 시기는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에 큰 변동이 일어나면서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 평균 수명 연장, 신체기능 약화, 경제적 은퇴 등을 맞이하면서 소외와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므로 적절한 친교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⁵⁾

5) 한정섭, 김민하, 생애전환기 신중년을 위한

국내의 노년층 인구도 고령화 및 노화 현상 급증에 따라 치매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고령층의 치매 발현과 그에 따른 후속 관리가 장기 과제로 주어진 데 따라 ‘돌봄 대상자로서의 치매 노년층은 개인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시야를 넓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통과제로 인식되는 시선으로 확장되고 있다. 치매의 유형은 언어능력 쇠퇴와 상실, 기억력 상실에 따른 불안감 증폭과 공격 성향 발현, 주의집중력 감퇴와 의사능력 저하, 논리성 저하에 따른 생각의 흐름 분산,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느끼는 것, 좋아하는 것, 생각하는 것, 등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관심과 돌봄의 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⁶⁾



[그림 2]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성인기 이후 기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른 전반적인 심리적 정서변화는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통제, 개인 간 접촉 최소화, 외출 이동 통제 등에 따라 ‘코로나블루’로 지칭되는 심리 위축과 우울감을 민감하게 느끼는 현상들을 가져왔다. 코로나블루는 학습활동, 수입활동, 관계활동 등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면서 두려움, 공포, 불안감, 우울감 등을 높이는 현상을 가져오면서 사회적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2020, vol.15, no.5, p.175 부분 인용.

- 6) 한국로잘린카터 케어기빙 연구소, 치매길라잡이-문제행동, 어떻게 돌볼까?, 고려사이버대학교 RCI-K, 2021, p.54. 요약 재구성.
- 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 한눈에 보는 문화예술교육 인포그래픽스, 문화체육관광부, 2020, p.68

관계망에 취약한 계층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을 실감케 하였다.⁸⁾

[그림 2]는 국내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2019~2020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유무를 비교해보면 20~29세 청년층과 50~64세의 장년층 대상이 약 74% 이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체험의 경험비율은 청년층이 제일 높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두 번째로 65~74세 노년층이 83% 가까이 되는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청년기에 다양한 문화생활과 경험들을 충족하려는 욕구, 65세 이후의 경제활동 은퇴기를 맞이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증가하는 상황에 따른 파생적 결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각 연령대 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시간, 건강, 경제적 여유가 되면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한편, 중장년층 및 노년층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정보를 타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접하고 많이 알고 있지만, 교육 정보의 인지율은 참여율, 체험율 등에 비해 17~25% 범주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와 정보 콘텐츠의 보편화 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신청과 참여 유도 서비스가 아직 과도기에 머무름을 반증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독려와 저변 확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2. 협력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필요성

경증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각 유형별로 분석하고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진행된 선행 사례들은 대체로 인지기능 및 문제행동 완화를 돕는 긍정적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미술 활동은 노인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으며 감정 및 생각이 반영된 특성의 표현과 동시에 신체 표현 활동이 수반되므로, 노인에게 미치는 다양한 효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적 감각을 향상을 통한 긍정적인 정신건강 회복, 미술 활동을 통한 본인의 감정 또는 욕구 해소, 다양한 감각과 신체 활동을 통한 인지 기능 유지 등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미술 활동의 다양한 행위는 노인에게 신체 및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효

- 8) 성경주, 김석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코로나블루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2021, vol.8, no.5, pp.75~76 요약 재구성.

과를 제공한다. 또한 심리적 긴장감의 이완과 안정감을 얻으며 색과 형태에 대한 구별 능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⁹⁾

2017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 <창의적 나이듦(Creative Ageing)>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 국제적으로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생존 수명이 길어지는 라이프 사이클 변화를 통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과제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 뮤지엄 문화가 발달한 유럽은 노인 고령화 문제를 지역사회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해 평생교육과 여가 활동의 확산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확대를 통해 노년층을 위한 미술관 중심 프로그램들도 활성화되는 추세이다.¹⁰⁾

특히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지칭되던 상황이 ‘고령 사회’로 확대되면서 만 70세 이상의 인구가 점차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야 할 복지정책과 경제적 부담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소통의 단절에 따른 심리적 우울감이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영향을 주면서 이는 곧 노년층의 주요 건강 및 생활 문제로 다뤄지는 ‘치매’에 대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치매는 노인성 인지장애에서 시작되어 알츠하이머, 혈관성 질환, 스트레스성 장애 등이 요인이 되는 질환이며,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 및 장기적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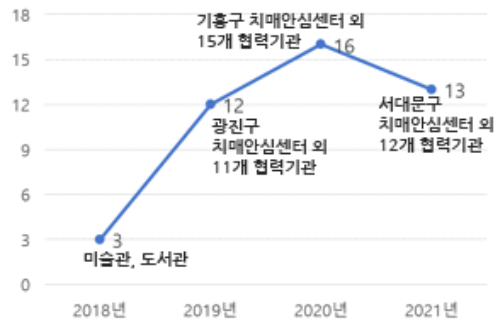
[그림 3]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4개년간 시행해온 치매예방형 문화예술치유 지원사업을 프로그램 공모방식으로 수행한 기관들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¹¹⁾ 2018년에 첫 사업을 시행하면서 긍정적인 수행결과를 도출하면서 10개 이상의 참여팀이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및 예술치료팀이 함께 연계된 치매예방형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 및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에도 꾸준히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다.

9) 장한별, 경증 치매 노인의 문제행동 유형별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p.140. 장한별 연구자의 수행연구 결과를 본 연구의 선행사례로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10) 양연경, 경증 치매 노년층의 사회성 회복을 위한 미술과 교육 방향성 연구, 2021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콘퍼런스, 2021, pp.29-30. 요약 재구성.

11) Ibid., p.30. 정량화하여 부분 요약함.

치매예방형 문화예술치유사업 시행기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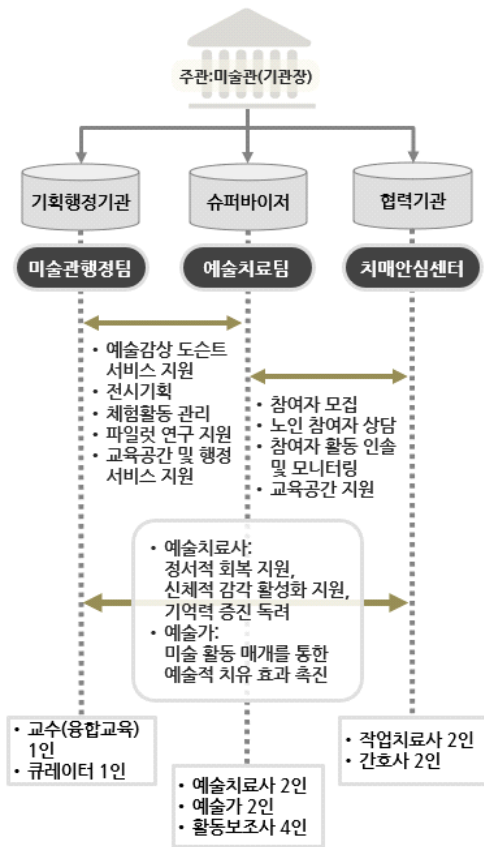


[그림 3] 최근 4개년 중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치매예방형 문화예술치유 지원사업 시행기관 추이

본 연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예술치유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소재 사립미술관, 서울 소재 구립치매안심센터, 수도권 소재 대학 미술치료학과 연구팀이 공동으로 시행한 2020년 치매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노년층의 소통 능력 향상과 사회적 회복을 돕는 미술관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경증 치매 노년층의 소통 향상과 사회성 회복을 위한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모델을 연구하였다.

[그림 4]에서 제시한 컨소시엄 형태의 미술관 연계형 프로그램은 예술치료 전문 슈퍼바이저를 중심으로 미술관 기획행정팀, 미술치료 임상수행팀, 치매안심센터 협력팀 등이 함께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교육 활동은 미술관 현장에서 총 11회기,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총 14회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¹²⁾ “형형색색 아름다운 기억, 예술이 되다”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기존의 예술치료사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스트레스 분석 및 활동 처방을 목적으로 임상 중심의 역할을 해오던 영역을 미술관의 문화예술 참여 활동과 치매안심센터의 지역 밀착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노년층 내담자가 스스로 심리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성을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12) 상원미술관, 2020 치매예방형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보고서-형형색색 아름다운 기억, 예술이 되다, 2020, p.16, 부분 참조, 2차 자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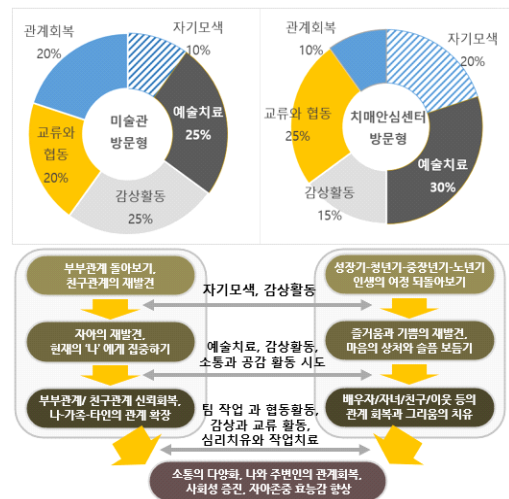
[그림 4] 문화예술치유사업 컨소시엄 운영팀 주요 구성

연구 기간은 미술관 문화예술교육 연계 중심 치유 프로그램 기획 및 모의 수업 파일럿 테스트 3개월, 지역 치매안심센터 내담자 현황 분석 및 치매 진행성 여부 척도 검사 1개월, 문화예술치유 교육 프로그램 현장운영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미술관 활동과 치매안심센터 활동의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분석의 임상 적용 슈퍼비전 6회, 전문성 역량 강화 워크숍 및 교육 운영 평가회의 9회 등을 거쳐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보완과 개선 활동이 진행되었다. 대주제로서 계절, 색채, 아름다운 추억, 예술감상 등의 공통 키워드를 중점으로 미술관 연계형, 치매안심센터 연계형 등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된 본 연구는 60대 후반, 70대, 80대 노년층 내담자들을 중심으로 미술관 참여자 6인, 치매안심센터 참여자 6인, 총 12인의 내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상기와 같은 미술관 주관 컨소시엄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미술관 방문형 활동 <당신과 함께 하는 나의 예술인생: Bravo! My Art Life with U>, 치매안심

센터 방문형 활동 <무지갯빛 즐거운 인생: Memory Coloring> 등을 각각 동시 시행하면서 하나의 공통주제를 교육 세부 주제에 따라 각각 나누어 시행하였다. [그림 5]는 2개의 세부 프로그램들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며, 미술관 방문형 프로그램은 부부와 친구 관계 중심으로 예술치료 25%, 감상활동 25%, 교류와 협동 20%, 관계회복 20% 순으로 비중을 두어 진행되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형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 맞춤 내담을 통해 예술치료 30%, 교류와 협동 25%, 자기모색 20% 순으로 비중을 두어 진행되었다.

미술관 방문형 프로그램은 '당신과 함께 하는 나의 예술인생'이라는 제목의 주제를 반영하여 노년층 부부 관계의 회복과 20년 이상 함께 동고동락한 노년층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속해줄 수 있는 소통과 사회성의 매개를 '미술관'과 '예술감상'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방문형 프로그램은 '나' 자신에 대한 밀도있는 탐색과 심리적 우울감 해소를 통해 자신의 어린시절, 청년시절, 중장년시절 등을 순차적으로 되돌아보며 긍정적인 삶의 가능성을 찾고 미술관이 제공하는 예술감상 콘텐츠를 부분 반영하여 예술치료와 심리회복에 중점을 두는 활동으로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



[그림 5] 미술관 주관 컨소시엄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구성 비유와 중점 활동 비교 분석

결론적으로 미술관 및 치매안심센터 협력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팀의 구성과 형식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구성이 필요하며, 미술관 방문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치매안심센터 방문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노년층의 소통능력 향상과 사회성 회복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기획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프로세스의 확립은 팬데믹과 포스트 코로나 이슈에 따른 노년층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의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기 연구가 다양한 문화기관의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3. 미술관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사례 분석

3-1. 미술관 방문형 문화예술치유 사례

미술관에서 진행된 방문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미술관은 전시를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2010년 이후부터 문화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 교육과 “찾아가는 미술관(아웃리치)” 등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지만 아직 실험적 접근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형형색색 아름다운 기억, 예술이 되다” 치매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중, 미술관 방문형 프로그램은 <당신과 함께 하는 나의 예술인생: Bravo! My Art Life with U>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치유 활동을 진행하였다. 상기 프로그램은 총 11회기 참여형 예술치유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참여자는 70대 후반 및 80세 이상의 노년층 시민 6인 대상이며, 부부 2팀, 친구 1팀으로 구성되어 미술관 전시 감상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표 1]은 참여자들의 세부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미술관 방문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구성

참여유형	성별/연령대	특이사항
부부1	남/70대	노인성 인지 저하(경상위험군)
	여/60대	치매 환자(초기)-보호자 필요
부부2	남/80대	노인성 인지 저하(경상위험군)
	여/70대	치매 위험군(초기 접근 단계)
친구 (이웃)	남/70대	인지장애 및 치매위험군
	남/80대	인지장애 및 치매위험군

[표 1]에서와 같이 참여자 구성은 부부와 이웃친구가 함께 그룹으로 방문하는 구조이다. 여성 참여자들이

경증 치매 증상이 진행되고 있어, 배우자의 일부 도움이 필요하였고, 이웃친구 관계의 내담자들은 노인성 인지장애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 유형은 크게 11회, 28시간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세부적 프로그램 구성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당신과 함께 하는 나의 예술인생: Bravo! My Art Life with U’라는 프로그램 명칭을 기반으로, ‘긴장 이완과 라포형성, 긍정적 지원 탐색 및 인식, 긍정적 자원 강화, 긍정적 자원 강화 및 행복감 증진, 긍정적 관계 경험 및 삶의 동기 강화, 행복감 강화, 소통의 공감과 사회성 회복’이라는 7가지의 발전 단계를 거쳐 소통 능력 향상과 가족관계 회복 및 증진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웃친구가 함께 동반 참여한 그룹은 독거 노년층의 소통의 단절을 회복하고 이웃과의 친밀한 유대감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치유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주2회 기준 방문형 미술관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전시 감상과 해설을 듣는 기회와 더불어, 예술치료팀이 매 회기마다 warm-up을 진행하는 미술, 음악, 영상 등을 매개로 하는 미술관 방문형 문화예술 치유를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1-2회기 활동은 긴장감을 이완하고 신체적 감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마음의 편안함과 관계 간 라포형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3-5회기 활동은 시각적 자극과 재료의 촉감을 최대한 느껴볼 수 있는 탐색과 인식의 과정에 집중하는 치유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6-8회기는 섬세하고 반복적인 패턴이 연출되는 예술 창작활동을 통해 심리치유와 대근육/소근육 인지능력 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9-11회기는 행복감 증진과 동기부여 강화의 효과를 증진하는 협동과정을 통해 노년층 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를 최대화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11회기의 수업 종료 후, 그동안 진행되어 온 최종 작품 결과물들은 슈퍼바이저·치료사·간호사·큐레이터 통합 슈퍼비전을 통해 미술관 전시장에 5일간 성과 공유 특별전시 형태로 대중들에게 공개 전시회로 선보였으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성과물들과 취합하여 작품 전시회 감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 전시회 형태의 성과공유 발표는 미술관 컨소시엄 팀들에게 있어 가시적인 정성적·정량적 평가 성과도출로 그 의미가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노년층 내담자들(참여자 12인)은 가족과 타인 간의 소통능력에 유연성을 가지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변인과 친교를 높이는 사회성 회복력에도 긍정적인 향상성을 보여주었다.

[표 2] “당신과 함께 하는 나의 예술인생: Bravo! My Art Life with U” 프로그램 구성

회기/ 참여시간	활동 내용	목표
1회기/ 3시간	음악감상 warm-up, 부부 및 이웃 소개하기, 하트모양 이름표 제작과 표현	긴장 이완과 라포형성
2회기/ 2시간	동영상 감상 warm-up, 한지, 손수건, 따뜻한 물을 활용한 재료탐색과 표현	
3회기/ 2시간	가족과 음식 회상 warm-up, 점토 활용 조형 작품 표현	긍정적 자원 탐색 및 인식
4회기/ 2시간	음악과 영상 감상 warm-up, 여름 계절과 가족 추억 회상 필름+셀로판, 반짝이 작품 표현	
5회기/ 2시간	음악과 영상 감상 warm-up, 가을 계절과 가족 추억 회상 점토, 빨대, 반짝이 작품 표현	
6회기/ 2시간	음악과 영상 감상 warm-up, 모자이크 타일 시계 작품 표현	긍정적 자원 강화
7회기/ 3시간	캘리그래피 감상 warm-up, 압화 꾸밈 액자 작품 표현, 감사의 마음 표현과 나눔	
8회기/ 3시간	고흐 자화상 및 팝아트 감상 warm-up, 팝아트 초상화 작품 표현	
9회기/ 3시간	배우자에게 바치는 노래와 영화 감상 warm-up, 서로 맞잡은 손 마사지 활동, 석고붕대 손뜨기 작품 표현	
10회기/ 3시간	만다라 영상 감상 warm-up, 색채표현 활동 및 협동 만다라 작품 표현	긍정적 관계 경험 및 삶의 동기 강화
11회기/ 3시간	기존 10회기 활동 되돌아보기, 메달과 상장 제작 및 축하활동	행복감 강화
*결과전시	미술관 작품 전시회 감상, 슈퍼바이저 • 치료사 • 간호사 • 큐레이터 통합 슈퍼비전	소통의 공감과 사회성 회복

3-2. 지역 치매안심센터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연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발견 및 단계별 관리까지의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내담자 본인 및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2019년 기준 전국 256개 보건소에 단계적으로 설치해 왔다. 치매안심센터는 그간 상담, 치매선별 • 진단검사 실시, 인지지원 프로그램 운영, 심터, 치매안심마을 조성, 치매공공후견 사업, 치매노인 자문 사전등록 등,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¹³⁾

13) 보건복지부, (2019.12.20.)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연구 및 실행을 위해 미술관 연계 이웃리치 중심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참여자 구성은 지역 주민 대상으로 60대부터 80대 이상의 인지장애 및 치매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¹⁴⁾ 일부 우울감, 정상위험군이 포함되었으며, 세부적 참여자 구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지역 치매안심센터 방문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구성(지역주민)

성별/연령대	특이사항
여/60대	인지장애 및 치매위험군
여/80대	인지장애 및 치매위험군
여/80대	인지장애 및 치매위험군(우울감 소견 있음)
남/70대	노인성 인지 저하(정상위험군)
남/80대	인지장애 및 치매위험군(우울감 소견 있음)
남/80대	인지장애 및 치매위험군(우울감 소견 있음)

이러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센터 방문형 프로그램은 <무지갯빛 즐거운 인생: Memory Coloring>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표 4]의 구성 내용과 같이 총 14 회기로 진행되었으며, 회기 별 2시간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자기 탐색과 라포형성,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별 변화를 메타포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초기 라포형성 과정에서는 자아 이해 및 수용을 위해 씨앗, 새싹, 꽃의 3단계 성장 과정을 시각적 표현 활동과 회상 훈련으로 진행하였다. 4회기~11회기는 ‘나’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 과정을 거쳐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신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즐거운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고 표현해봄으로써 ‘자기 이해와 수용’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4-11회기 기간은 개인 참여자들이 자신의 작품 제작과 미술재료 탐색 및 표현에 집중하던 활동의 패턴을 동료 참여자들에 대한 관심과 대화의 기회를 늘려감으로써 나와 타인의 관계 형성에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6&CONT_SEQ=351987

14) 본 연구에 적용된 치유허동 프로그램은 미술관 큐레이터팀과 의과대학 예술치료팀이 공동 연계하여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14회기 기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섬세한 정서적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년층 참여자들은 11회기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다수의 참여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함께 의견을 나누며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표현의 기회가 늘어남으로써 소통의 향상 정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표 4] “무지갯빛 즐거운 인생: Memory Coloring” 프로그램 구성(회기 별 2시간 기준)

회기	활동 내용	목표
1회기	이름표 제작, 유아기/아동기 회상 활동, '씨앗'으로 시각적 표현 활동	자기 탐색과 리포형성
2회기	청소년기/성인기 회상 활동, '새싹'으로 시각적 표현 활동	
3회기	'현재의 나' 돌아보기, '꽃'으로 시각적 표현 활동	
4회기	봄꽃의 추억: 캔버스에 콜라주 표현	'봄의 나' 탐색: 자기 이해 및 수용
5회기	봄의 명절과 전통복식 회상: 꼬까신 제작과 표현	
6회기	비오는 날의 추억과 회상: 우비 제작과 런웨이 걷기 활동	'여름의 나' 탐색: 자기 이해 및 수용
7회기	여름 보양식의 추억과 회상: 나만의 삼계탕 만들기과 음원의 메시지 제작	
8회기	가을 명화, 시, 사진 감상(회상): 추억 나눔, 편집, 필사, 창작	'가을의 나' 탐색: 자기 이해 및 수용
9회기	국화차 향기와 가을 추억 회상: 마곤을 활용한 컵받침 표현	
10회기	겨울 명절과 전통복식 회상: 기모원단 버전 제작과 표현	'겨울의 나' 탐색: 자기 이해 및 수용
11회기	겨울 시절의 따뜻한 추억 회상: 소중한 사람을 위한 손난로 표현	
12회기	'스스로 위로하기와 응원' 영상 촬영과 제작: 함께 시청하며 롤링 페이퍼 제작	긍정적 정서 증진 / 자기수용 및 통합
13회기	프로그램 활동 되돌아보기: 작품 감상과 포토북 표지 제작	
14회기	사진 감상과 활동 되돌아보기: 추억담은 포토북 제작과 완성	
*결과전시	치매안심센터 작품 전시회 감상, 슈퍼바이저 • 치료사 • 간호사 • 큐 레이터 통합 슈퍼비전	소통의 공감과 사회성 회복

12회기~14회기 후반부는 지난 11회기까지 진행해 온 활동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즐거운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는 과정으로 연계함으로써 편지쓰기,

응원영상 제작, 추억사진 찍고 앨범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중반부 활동이 개인의 표현력과 인지 기능 향상, 자기 내면의 다양성 재발견 등으로 이루어 졌다면, 후반부 활동은 ‘나’를 비롯한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 중심으로 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으로 발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12~14회기는 긍정적 정서 증진, 자기수용 및 통합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최종 작품 결과물들은 미술관 방문형 프로그램의 성과물들과 총괄 취합하여 미술관 특별전을 먼저 종료하고, 해당 전시 레이아웃 배치 방식을 치매안심센터 전시공간에 재적용하여 아웃리치형 특별전시회로 추가 진행하였다.

4. 경증 치매 노인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모델

4-1. 미술관 중심 컨소시엄형 결과 평가 분석

미술관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미술관의 융합 교육은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슈퍼바이저 • 치료사 • 간호사 • 큐레이터의 통합 슈퍼비전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최종 결과물은 전시를 통해 소통과 공감, 사회성 회복이라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과 방역 강화로 인해 다수의 인원모집 제한이 매우 엄격하였던 환경적 요인이 문제가 되었으며, 정량화된 결과값 제시에는 노년층 참여자 인원이 적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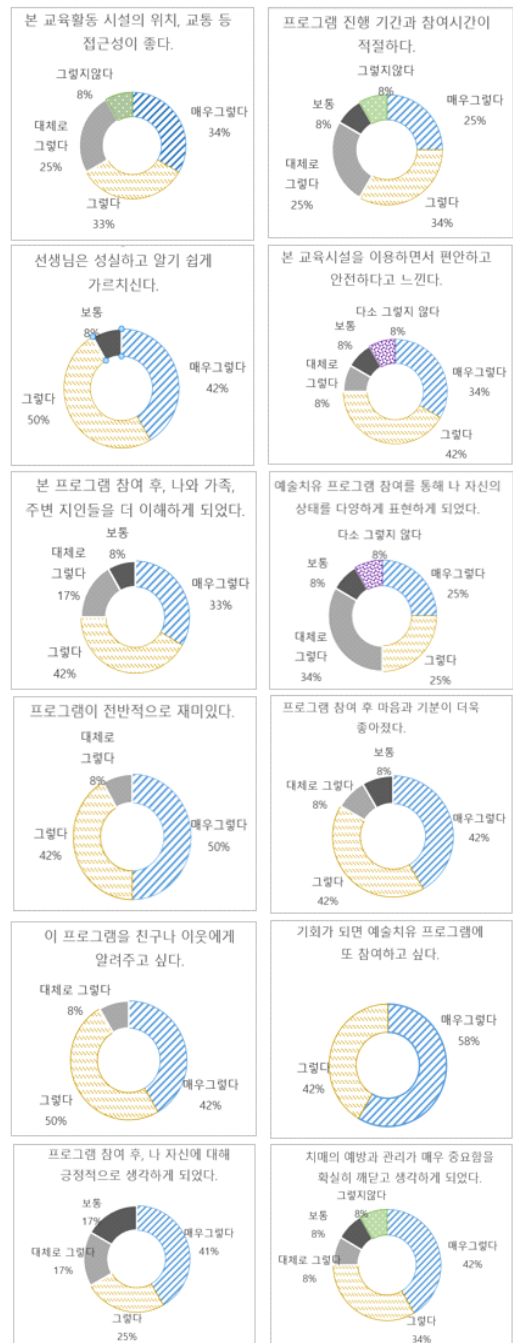
본 연구의 미술관 중심 컨소시엄형 노년층 문화예술 융합교육의 결과 평가를 위해 2020년 12월~2021년 6월에 진행된 참여자 만족도와 전문가 자문 및 FGI 진행을 통해 각각 수행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치매에 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노년층 참여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 평가 기준은 [표 5]와 같다.

평가의 기준은 위치와 시간에 따른 접근성/적절성, 시설에 대한 안정성/신뢰성, 사용자 요구사항과 연관된 소통, 성취감/만족감, 사회성 회복력, 자기효능감 등으로 구분하여, [표 5]의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노년층 참여자 만족도 결과값은 [그림 6]과 같다.

[표 5] 치매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노년층 참여자 만족도 조사 평가 기준

기준	평가 내역
접근성/적절성	본 교육활동 시설의 위치, 교통 등 접근성이 좋다.
	프로그램 진행 기간과 참여시간이 적절하다.
안전성/신뢰성	선생님은 성실하고 알기 쉽게 가르치신다.
	본 교육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
소통의 향상	본 프로그램 참여 후, 나와 가족, 주변 지인들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예술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 자신의 상태를 다양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성취감/만족감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재미있다.
	프로그램 참여 후 마음과 기분이 더욱 좋아졌다.
사회성 회복력	프로그램을 친구나 이웃에게 알려주고 싶다.
	기회가 되면 예술치유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예술치료와 자기효능감	프로그램 참여 후,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치매의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확실히 깨닫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림 6]의 결과 내역을 분석해보면,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등의 단계로 7점 척도법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취감/만족감’ 영역과 ‘사회성 회복력’ 영역은 다수 참여자들의 의견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등으로 92% 이상을 차지하여 만족도가 높은 의견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되었다. ‘소통의 향상’과 ‘예술치료와 자기효능감’ 영역은 가족과 주변인들의 이해가 높아졌고 본인 자신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상대적으로 본인 자신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자신감, 치매예방의 중요성 인지 부분에서는 “매우 그렇다” 단계에서 “보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7점~4점 단위로 다양한 의견들이 분포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장소의 물리적 접근성, 프로그램 참여 소요시간, 시설의 안전성 여부는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의 비중이 일부 차지하는 결과로 볼 때, 노년층의 건강과 활동 능력이 집중 가능한 시간대를 고려하여 집과 거리가 가깝고 교통편 이용이 쉬운 곳, 2시간 넘지 않는 수업 참여시간 등을 선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결과

2차 결과 평가 분석에서는 치매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노년층 어르신 그룹 10인¹⁵⁾, 미술관

15) 2020년 11월~12월에 간단한 개인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경증 치매가 진행되는 어르신 2인은 제외하고 나머지 참여자 10인을 대상으로

컨소시엄형 융합교육의 현장평가 및 효과성 논의를 위한 전문가 그룹 12인 등으로 진행되었다. 세부적인 공통 의견 요약은 [표 6]과 같다.

[표 6] 자문평가 및 FGI 요약

전문가 그룹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미술관 연계교육 긍정적 평가
• 전시 큐레이터 (A): 58세(男) • 전시 큐레이터 (B): 43세(男) • 에듀케이터 (C): 31세(女)	• 미술관이 주관기관으로 의과대학과 치매안심센터가 협력 운영을 진행하는 가운데, 예술치료팀의 진행 비중이 너무 높아져 상호간 적절한 균형과 배분이 필요함. • 사립미술관 치유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대다수 전문인력들이 현장에 함께 배치될 필요가 있음. • 지역 주민들에게 주변의 가까운 문화시설과 치매안심센터를 적극적으로 방문 및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 알림이 필요함.
• 간호사(D): 53세(女) • 간호사(E): 30세(女) • 작업치료사(F): 32세(女) • 보건소주무관 (G): 32세(男) • 활동지원사(H): 57세(男)	• 상담, 치료, 재활 목적 작업치료 개념에서 미술관 연계 문화활동과 전시감상의 연결성, 의대 소속 예술치료팀 방문 교육이 긍정적 회복력을 가져왔다고 평가함. • 코로나 이슈로 치매안심센터가 잠시 폐쇄되었던 상황에서, 미술관의 조건부 활동 가능성이 치매센터 통제의 제한점을 적절히 상쇄시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평소 1대1 지원을 받는 내담자들이 담당간호사와 치료사의 주의사항을 평소보다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 예술치료사 (I): 43세(女) • 예술치료사 (J): 28세(女) • 대학교수(K): 53세(男) • 대학교수(L): 47세(女)	• 기존의 임상과 치료보다는, 내담자의 인지력 회복과 심리치유에 중점을 둔 미술관 프로그램에 동참한 과정들이 풍부한 경험과 교류를 가져왔다고 평가됨. • 미술관 학예인력들은 심리치유와 미술을 통한 재활교육에도 지속적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기본적인 심리상담 임상정보들도 어느 정도 숙지해야 하겠음.
• 미술관 방문형 프로그램 참여자 (4인)	• 80대 이후 세대는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공교육과 배움의 기회가 짧아 본 수업에 통해 미술교육과 치매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음. • 미술관에 찾아오는 기회들을 통해 전시 작품도 감상하고 우리를 작품으로 손수 직접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어 뜻깊고 감동의 마음이 크게 다가옴.
• 치매안심센터 방문형 프로그램 참여자 (6인)	• 가까운 곳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치매 상담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 좋았고, 미술을 통해 심리치료와 인지기능 향상 재활을 병행할 수 있어 좋았음. • 프로그램은 유익하고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처음 다루는 미술 재료를 일부는 능숙하게 사용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워서 충분한 설명과 지도가 필요함.

미술관 연계형 치유사업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FGI 세부의견 내역은 총 22인을 중심으로 개인 인터뷰, 전체 회의를 진행하여 FGI 기반의 다양한 의견과 정량적 평가 내역을 정리하여 경증 치매 노년층에 적합한 미술관 융합교육의 실효성을 분석하는데 밑받침이 되었다. FGI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집단과 프로그램 참여 노년층 집단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요구사항들이 각각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주요 의견 분석은 노년층의 활동 참여에 따른 인지력 회복의 정도, 대화 빈도수와 소통능력의 향상, 대외적 교류를 다양하게 시도하는 사회성 회복력, 미술관 문화향유의 참여 증대 등을 중점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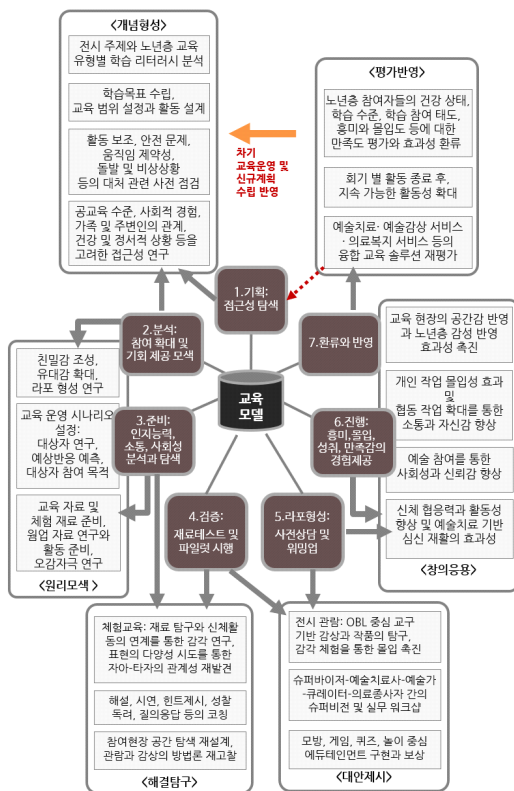
미술관 관계자들의 주요 의견은 임상 전문 예술치료팀과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컨소시엄은 매우 유의미하지만, ‘참여자’ 보다는 ‘내담자’ 내지 ‘치료대상자’의 인식을 좀 더 벗어나 예술과 보건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구축이 가능한 균형있는 노년층 중심 미술관 융합교육 시스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예술치료팀이 미술관 전문인력들과 함께 공동기획을 추진하여 프로그램의 중심이 예술+임상+치유+복지향상 등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치매안심센터 관계자 주요 의견은 상담과 치료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예술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인지장애와 치매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연계형 활동에 긍정적 평가를 제시하면서 치매안심센터의 추가 활동을 보완해주는 완충 역할로 가치가 있음을 평가하였다. 의과대학 예술치료팀은 본 프로그램에서 미술관 중심의 감상활동 및 예술 콘텐츠 제공 협력을 통해 심리치유 중심의 노년층 경증치매 극복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며 미술관 관계자들도 상담, 치유, 임상 등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성을 넓혀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60~80대 연령층의 어르신 대상의 전반적인 의견은 평소 어려웠던 미술관 방문의 기회가 주어져 문화예술의 다양한 향유의 기회를 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점, 지속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고 대화하며 우울감을 극복함으로써 사회성을 넓힐 수 있었다는 긍정적 자신감 회복의 기회를 큰 이점으로 제시하였다.

노년층 참여자의 추가 제안은 거주지역과 가까운 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겸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 익숙하지 않고 생소한 도구와 미술재료들은 충분한 설명과 재료 탐색의 시간이 더욱 필요한 점, 2시간 내외로 소요되는 프로그램 참여시간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개선과 보완 요청으로 제언함으로써 물리적 접근성과 참여시간의 적정성을 강조하였다.

4-2.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모델 제안

예술치유는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기치유력과 자기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는 치유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가들은 참여자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를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⁶⁾

[그림 7]은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술관 전시 연계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운영함에 있어 미술관 학예인력들이 장애인 및 경증 치매 노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기획에 기초 모델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나타낸 것이다.¹⁷⁾



[그림 7] 노년층 연령 중심의 경증 장애인 대상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기초 모델

본 연구에서는 [그림 7]에서 기초적으로 구축된 가이드라인 모델을 응용하여 노년층 및 장애인 감상 교육과 체험 활동에서 활용되는 '사물탐색 기반 전시 감상교육(OBL)'¹⁸⁾과 미적 체험 중심의 미술관 교육 모델을 기초 프레임으로 설정하여 경증치매 노년층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 회복에 도움을 주는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모델 기본 7단계 영역을 구축한 것이다. [그림 8]에서 제시되는 프레임워크는 경증 치매 노인의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로서 경증 치매 노인 대상자의 인지 및 심리 분석, 프로그램 준비 및 교육 효과성 검증, 융합교육 진행 및 환류 등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분석-준비-검증-사전체크-진행-환류 등의 단계 내에서, 초기 단계는 예술치료 슈퍼바이저와 큐레이터 협업을 중심으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기획 및 분석을 토대로 회기별 프로그램 운영의 준비단계를 거친다. 여기서는 치유프로그램의 '개념형상'과 '원리모색'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예술치료사와 예술가가 현장에 동시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결탐구' 단계로 적절히 연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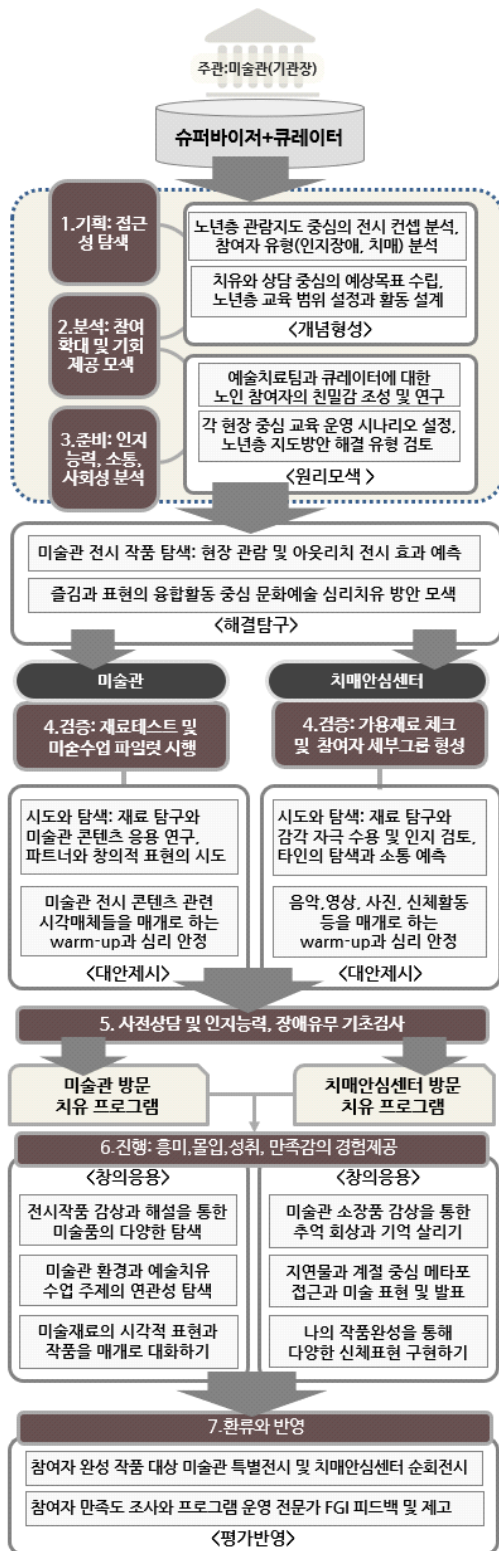
준비와 검증 과정 사이에는 해결탐구 역할을 수반하여 치매안심센터의 보건 및 임상 전문인력들과 상호 협력 및 기관별 세부 검증을 거친 후, 효과적인 교육에 필요한 대안제시 영역도 고려해야 한다. 참여자들을 만나기 전, 또는 첫 만남에서 인지능력과 치매의 정도, 장애의 유무를 파악한 후에 예술치유 프로그램이 각 회기마다 진행되면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도전과 시도, 만족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응용 단계에 몰입과 집중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도 만족도 조사와 의견 취합을 통한 노년층의 제안과 사후상담을 환류와 반영의 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는 슈퍼비전으로 연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정부 및 공공기관 거버넌스와 연계되므로 지역 거점 치매예방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치유, 치료, 교정, 훈련 등을 전제로 하는 미술
관 연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슈퍼비전의
궁극적 목표와 방향성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예술
치료 개념의 슈퍼비전은 내담자가 제공받는 상담 및
돌봄에 유의미하고 높은 질적 개입과 모니터링 감독을
통해 적절한 환류(feedback)와 반영(reflection)으로
이루어진다.

16) 박소연, 이지혜, 예술치료사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평가 참여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vol.20, no.21, p.800, 요약 재구성.

17) 양연경, 경증 장애인의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2021, vol.6, no.1, p.61, 재구성.

18) Object-Based Learning 전시감상법. 탐구 및 창작과 공유의 과정을 통해 인지적·감성적·감각적 측면을 활성화할 수 있는 뮤지엄 감상교육 기법.



[그림 8] 경증치매 노년층 대상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설계

보편적인 예술교육 과정이 순차적 교육 참여의 종료로 마무리되는 반면, 장애인과 경증 치매 노년층 중심의 미술관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예술치유, 사회성 회복과 마음열기 등으로 연계되는 활동으로 운영될 때, 회차별 수업의 종강이나 회기별 치료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오픈되어야 한다. 체험형 예술창작 활동을 통한 성과물 발표, 상담과 의견 공유 중심의 간담회, 노년층 참여작품의 특별전시 개최, 차년도 프로그램 참여의견 수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성과 접근성 향상을 통해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이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과 사회적 문제해결의 매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융복합 채널로 확대되도록 혁신과 변화에 유연해져야 할 것이다.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변인 사항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능숙하고 숙련된 슈퍼바이저(supervisor) 변인, 기본 임상능력을 갖춘 일반 슈퍼바이저(supervisee) 변인, 슈퍼비전의 효과 변인 등이 전문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내담자의 자기개방, 자기효능감, 정체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의 정도, 고통 공감 등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된다.¹⁹⁾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증치매 노년층의 미술관 융합교육 가이드라인 모델 구현은 현장 체험수업 또는 전시해설 감상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특히 경증치매 노인의 페르소나를 반영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문화 접근성 취약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 수립과 가이드라인 구축에 중요한 모형을 되리라 예상한다.

5. 결론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유물 혹은 예술작품을 매개로 감상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 대상의 뮤지엄 참여 활동들이 주로 감상 행위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는 시도를 '기억 활동'으로 연결지어 인지능력을 높인 시너지를 도출하는 추세이다. 특히 치매 노년층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활동인데, 이것을 창작활동을 병행하여 촉각을 자극시키고 두뇌활동을 촉진하는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며 성취감과 자아존중감을 증대하는 역할을 한다. 노년층의 오랜 경험과 깊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점, 한편으로는 노화의 자연스러

19) 윤라미, 미술치료 슈퍼비전 국내외 연구동향, 예술심리치료연구, 2021, vol.17, No.4, p.126, 요약 재구성.

움이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자존감을 잃어가는 과정임을 우울감과 소외감으로 겪는 문제들에 대해 뮤지엄 교육에서 노인의 능동적 활동과 참여가 정신건강과 자존감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음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²⁰⁾

본 연구는 경증 치매 노년층이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질적으로 만족도 높은 미술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융합교육 모델을 통해 개인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사회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뮤지엄 가이드라인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문화예술 중심의 미술관 공공서비스의 역할이 예술복지, 마음건강, 지역의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문화 접근성 취약계층의 사회성을 높이는 창의적 콘텐츠의 모색과 뮤지엄 서비스 디자인을 향상시킨다.

둘째,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미술관 방문 기회 확대를 통해 감상, 체험, 치유, 소통, 사회적 교류 등이 가능할 수 있는 전시 큐레이션의 노하우를 수립할 수 있으며, 특화된 교육 모델로서도 연계 가능하다.

셋째, 의과대학 중심의 임상 예술치료와 지역 치매 안심센터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미술관 문화활동과 융복합 연계하여 원스톱 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미술치료 통합 서비스가 동시에 가능하고 지역 접근성을 높여준다.

넷째, 다양한 분야의 컨소시엄 운영에 있어 명확한 기준의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하나의 공통주제를 다루는 경증 장애인 및 돌봄대상자 중심의 미술관 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행동교정과 중급 난이도의 예술치료와 상담 및 심리치유를 중점으로 두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효과적인 미술관 컨소시엄 융합형 교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술관 학예인력팀 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다수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과 지식, 신뢰성 있고 확고한 교육 인사이트 구축, 물리적 공간의 유연한 오픈 운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림 09] 경증 치매 노년층 미술관 융합교육 컨소시엄 모델

[그림 9]와 같이 미술관 큐레이터는 문화예술 영역 외에도 복지, 보건, 조직운영, 경영행정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문화향유 접근성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고충을 더욱 집중하여 현실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포용의 시대'를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인 집중력이 동시에 필요하다.²¹⁾ 충분한 교감을 통해 모든 계층의 전시 관람객들과 치유 프로그램 참여 내담자들을 함께 아우르는 오픈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며, 다수 기관과의 컨소시엄형 미술관 융합교육의 고도화에 주력해야 할 책임감 또한 가져야 하겠다.

Geisinger Commonwealth School of Medicine in Pennsylvania 신경과 교수 글렌 R. 피니 박사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 관련 질환을 앓다가 사망한 노인들의 뇌를 부검한 결과, 연구진은 기존에 경청자가 많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게 가졌던 노인의 인지기능이 더 높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노년층 뇌과학 전문 연구진들은 고령층 노년세대에 진입할수록 타인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다수와 교류하는 과정들을 지속해 나가는 행위들이 학습, 사고, 문제해결, 의사결정, 기억 등, 인지적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정서적 지지자, 자신의 말을 들어 줄 사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²²⁾

미술관의 전통적 역할이 전시, 교육, 수집, 보존, 연구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미래를 지향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공의 시민성을 지향하면서 문화 접근성 취약계층의 창의적 예술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20) 박민진, 권지연, 한국의 고령화와 박물관·미술관 노인교육: 노인 대상 프로그램 및 노인주제 전시 사례연구, 박물관학보, 2019, 36, pp.63-64, 요약 재구성.

21) 양연경, 남현우, [스마트 큐레이터 똑똑한 미술관], 박영사, 2021, p.280, 부분 요약.

22) HiDoc 뉴스, "경청해주는 사람, 나의 '뇌 건강'까지 지켜준다(2021. 8.18 보도)" 부분 인용.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627>
 168

을 매개로 하여 개인과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어질 수 있는 확대된 역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생애전환기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모색하거나 생활 속 문화향유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60대 후반 및 70대 노년층으로 이어지는 예술치유 프로그램도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박물관, 미술관도 신중년 세대 및 노년기 대상자들을 위한 액티브 시니어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사회성 회복과 소통의 공감 확산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치유 성장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대중들에게 접근성과 효능감을 높이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의 맥락을 이어주면서 초고령 노년층의 인지력 저하와 뇌건강 위험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OBL 중심 전시 해설, 창작형 체험교육, 심리치유 중심 예술치료 수업, '예술로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이 함께 병행됨으로써 개인의 고립을 해소하여 주변 이웃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사회성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거점 및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미술관의 새로운 미션으로 확대해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양연경, 남현우, [스마트 큐레이터 똑똑한 미술관], 박영사, 2021
2. 이영희, [노인복지론], 에듀컨텐츠휴피아, 2020
3. 한국로잘린카터 케어기빙 연구소, [치매길라잡이-문제행동, 어떻게 돌볼까?], 고려사이버대학교 RCI-K, 2021
4. 박민진, 권지연, 한국의 고령화와 박물관·미술관 노인교육: 노인 대상 프로그램 및 노인주제 전시 사례연구, 박물관학보, 2019, 36
5. 박소연, 이지혜, 예술치료사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평가 참여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vol.20, no.21
6. 성경주, 김석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코로나블루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2021, vol.8, no.5
7. 양연경, 경증 치매 노년층의 사회성 회복을 위한 미술과 교육 방향성 연구, 2021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콘퍼런스, 2021
8. 양연경, 경증 장애인의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2021, vol.6, no.1
9. 윤라미, 미술치료 슈퍼비전 국내외 연구동향, 예술심리치료연구, 2021, vol.17, No.4
10. 한정섭, 김민하, 생애전환기 신중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2020, vol.15, no.5
11. 상원미술관, [2020 치매예방형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보고서-형형색색 아름다운 기억, 예술이 되다], 2020
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 한 눈에 보는 문화예술교육 인포그래픽스, 문화체육관광부, 2020
13. 장한별, 경증 치매 노인의 문제행동 유형별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4. news.kbs.co.kr
15. terms.naver.com
16. www.arte.or.kr
17. www.hidoc.co.kr
18. www.mohw.go.kr